

## 특허청 - 지식재산기반 창업촉진(IP디딤돌프로그램)

### <사업 기본정보>

- 사업유형/세부유형 : 창업지원 / 창업초기지원
- 소관부처/담당부서 : 특허청 / 지역산업재산과
- '21년 평가등급 : 개선필요

## 1 사업 주요내용

### □ 사업의 목적 및 내용

- (사업 목적) 혁신형 창업 활성화를 위한 지식재산 기반 창업 지원 체계 구축
  - 개인 및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기술적으로 발전시켜 지재권화하고, 사업아이템 도출을 지원하여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촉진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17~)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민간경상보조

### □ 예산 및 재원 :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표 1〉 지식재산기반창업촉진 사업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

사 업 명	'20년			'21년 예산 (B)	증감(B-A)	
	본예산 (A)	추경	결산 (집행률)			(%)
□ 지식재산기반 창업촉진 (IP 디딤돌 프로그램)	3,668	-	3,668 (100.0)	3,214	△454	△12.4

## □ 추진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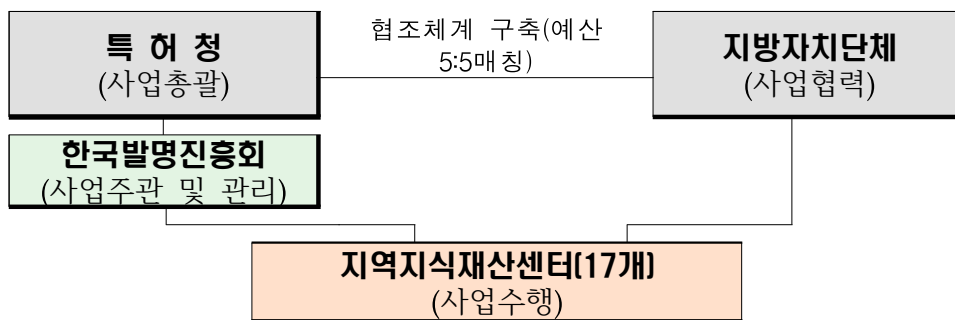
- 지식재산기본법 제25조(지식재산의 활용 촉진),
- 발명진흥법 제3조(발명진흥종합시책) 및 제6조(발명에 대한 인식 향상과 발명 활동의 촉진)

## □ 주요 지원대상

- 개인 및 예비창업자

## □ 전달체계

- 특허청과 지자체가 협조체계 구축(예산 5:5매칭)
- 특허청이 사업을 총괄·감독하고 한국발명진흥회가 사업주관, 지역 지식재산센터가 사업수행



## □ 전년 대비 주요 개편사항

- 변경사항 없음

## 2 정량지표 평가 결과

### □ 참여자 현황

- (성별) '20년 전체 참여자는 844명이며, 이 중 남성 참여자의 비중은 70.7%, 여성 참여자의 비중은 29.3%로 남성 참여자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연령별) '20년 기준 청년층(15~34세)의 참여 비중은 35.8%이며, 중년층(35~54세)은 51.3%로 참여자의 다수를 차지함

〈표 2〉 지식재산기반창업촉진 사업 참여자 현황

(단위: 명, %)

유형	전체	성별		연령별					
		남성	여성	청년 (15~34세)	중년(35~54세)		장년 (55~64세)	고령 (65세이상)	
					35~39세				
창업지원사업 전체	32,658 (100.0)	25,220 (77.2)	7,431 (22.8)	9,051 (27.7)	19,759 (60.5)	5,732 (17.6)	3,320 (10.2)	447 (1.4)	
창업초기지원 전체	4,403 (100.0)	2,463 (55.9)	1,939 (44.0)	2,480 (56.3)	1,574 (35.7)	829 (18.8)	217 (4.9)	61 (1.4)	
	지식재산기반	844	597	247	302	433	130	83	24
	창업촉진	(100.0)	(70.7)	(29.3)	(35.8)	(51.3)	(15.4)	(9.8)	(2.8)

주1: 성별, 연령별로 분류불능이 존재하여 각 비율의 합은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음

## □ 사업체 현황

- (규모별) '20년 사업체 844개소 중 고용보험 DB에 연계된 사업체는 114개소이며, 300인 미만 사업체 비중이 13.5%로 나타남
- (산업별) '20년 기준 서비스업 79개소(9.4%)였으며, 제조업 33개소(3.9%) 순으로 나타남

〈표 3〉 지식재산기반창업촉진 사업체 현황

(단위: 명, %)

유형	전체	규모별		산업별		
		300인 미만	300인 이상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창업지원사업 전체	32,658 (100.0)	24,359 (74.6)	13 (0.0)	9,137 (28.0)	205 (0.6)	14,880 (45.6)
창업초기지원 전체	4,403 (100.0)	1,518 (34.5)	13 (0.3)	538 (12.2)	22 (0.5)	959 (21.8)
지식재산기반 창업촉진	844 (100.0)	114 (13.5)	0 (0.0)	33 (3.9)	0 (0.0)	79 (9.4)

주1: 규모별, 산업별로 분류불능이 존재하므로 각 비율의 합은 100%미만일 수 있음

주2: 부처 제공자료와 고용보험DB가 연계된 사업체를 대상으로 함

## □ 정량지표별 결과

〈표 4〉 지식재산기반창업촉진 성과지표

(단위: %, 일)

	지속고용 사업장비율	고용창출 기업비율	고용증감률	임금수준	창업률
창업지원사업 전체	71.0	62.9	53.3	131.5	84.9
창업초기지원 전체	65.3	48.2	-	-	84.9
지식재산기반창업촉진	54.0	25.1	-	-	57.3

주: 부처 제공자료와 고용보험 DB와의 매칭률은 '19년 13.0%, '20년 13.5%임

## □ 만족도 조사 결과

〈표 5〉 지식재산기반창업촉진 참여자 만족도 조사 결과

(단위: 점)

	전체 만족도	전반적 만족도	절대적 만족도	지원 대상	지원 기간	지원 수준	신청 절차	지도 및 관리	주관적 만족도	상대적 만족도
창업지원 전체	4.33	4.34	4.19	4.42	4.20	3.97	4.17	4.20	4.45	4.34
창업초기지원 전체	4.29	4.31	4.14	4.34	4.16	3.91	4.14	4.14	4.41	4.29
지식재산기반 창업촉진	4.28	4.26	4.12	4.30	4.24	3.76	4.10	4.18	4.46	4.28

※ 만족도 조사 결과는 1점 매우 불만족부터 5점 매우 만족까지로 구성된 5점 척도 문항의 평균값임

〈표 6〉 지식재산기반창업촉진 참여자 만족도 조사 전년도 대비 변화

(단위: 점)

	전체 만족도	전반적 만족도	절대적 만족도	지원 대상	지원 기간	지원 수준	신청 절차	지도 및 관리	주관적 만족도	상대적 만족도
평가년도 만족도	4.28	4.26	4.12	4.30	4.24	3.76	4.10	4.18	4.46	4.28
전년도 만족도	4.31	4.20	4.28	4.51	4.28	4.07	4.33	4.23	4.47	4.28
전년 대비 변화	△0.03	+0.06	△0.16	△0.21	△0.04	△0.31	△0.23	△0.05	△0.01	0.00

※ 만족도 조사 결과는 1점 매우 불만족부터 5점 매우 만족까지로 구성된 5점 척도 문항의 평균값임

## 3 정성지표 평가 결과

### □ 사업의 중요성

- 이 사업은 예비창업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지식재산권화하고, 지식재산 기반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식재산 기반 창업 생태계 조성에 부합함
- 이미 완성된 사업 아이템을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하는 다른 정부 창업지원사업과 달리, 특히 컨설팅을 통해 예비창업자의 아이디어를 구체화·권리화하여 사업 아이템을 도출하고, 간접적으로 창업을 유도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차별화됨

- 또한 이 사업은 수도권에 집중된 지식재산 인프라(변리사의 87.9%, 지식재산 관련 기관·기업의 71%)와 지방자치단체의 낮은 재정자립도를 감안할 때 기술창업 성공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필요성이 인정됨

## □ 일자리사업 성과

- IP디딤돌 프로그램은 당장의 일자리보다는 아이디어의 구체화·권리화를 통한 창업에 중점을 둔 사업으로 이미 완성된 제품을 대상으로 사업화 자금을 지급하여 창업을 지원하는 경우에 비해 창업성공률이 낮음
  - '20년에 946건의 아이디어 권리화 지원, 455건의 창업지원, 261건의 지식재산 기반 창업 실적을 기록함
  - 일자리 성과는 최초 창업자 이외의 정규직만을 고용인원으로 산출하고 있는데, '20년 일자리 창출기업은 73개사로 전체 고용인원은 168명(업체 평균 2.30명)임
- '17년 IP디딤돌 프로그램 수혜를 받은 창업기업(129개사)의 '20년 말 현재 생존률은 72.1%(93개사)이며, 생존기업 중 32개사에서 130명의 신규고용이 발생하여 생존업체당 신규고용은 1.39명임

## □ 운영의 적절성

- 이 사업 참여자의 유입 경로는 (i) 지식재산 권리화를 위해 지원한 참여자를 상담해주면서 교육으로 연계하는 경우, (ii) 고도화된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교육 수강생을 지식재산권리화로 연계하는 경우로 구분해 볼 수 있음
- 아이디어를 지식재산 기반 창업아이템으로 도출하기 위해 전국 17개 지역지식재산센터를 활용한 아이디어의 고도화·권리화 컨설팅 및 창업교육, 타부처 창업자금지원사업과의 연계, 시니어 창업교육을 신설 운영함

- 17개 광역시·도에 설치된 지역지식재산센터에 전문컨설턴트(변리사, 지식재산분야 전문가, 이학·공학 박사)와 창업컨설턴트(창업보육 매니저)를 운용 중에 있음
- '20년도에 지역지식재산센터를 통해 해당 지역민 1,501명('19년 1,426명) 대상의 IP창업 교육·컨설팅을 실시함
- 창업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한 중앙부처, 지자체 등의 창업자금지원 사업과의 연계 지원 실적이 312건('19년 275건)에 달함
- 40세 이상 중장년 특화 IP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여 266명의 중장년 창업자를 양성함
- 'IP 디딤돌 프로그램 사업지침 및 업무가이드'에 따라 교육 이후 아이디어 권리화 기간을 과제 당 3개월 이내로 하며, 3D 형상화, 제품 디자인 개발 및 브랜드 설계 등의 후속 지원을 통해 창업성과를 높이기 위해 노력을 강구함
- 코로나19 확산으로 '온라인 IP창업존'을 신설·운영하였으며, 중소기업의 투자애로 해소를 위해 온라인 투자유치회를 개최함
- 온라인 수행이 어려운 기술컨설팅 및 아이디어 구현 실습은 대면으로 실시하고, 아이디어 상담은 인터넷으로 실시함

## □ 제도 개선 노력

- '19년 일자리 사업 평가 의견에 따라 창업 이후 사업화(창업자금 등) 지원 연계를 위해 '예비창업패키지' 등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타 부처 사업과 연계하여 사업화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창업 건수의 증가를 도모함
- 타부처 사업연계 건수: ('18)221건 → ('19)275건 → ('20)312건
- 협력기관 선정·계약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기술분야별 협력기관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의계약 방식에서 공개입찰계약 방식으로 선정방식을 변경함

- 예비창업자의 초기 경쟁력 강화를 위해 PCT 출원, 제품 디자인 개발, 브랜드 설계 등 IP 후속지원을 강화함

- IP 후속지원 건수: '20년 207건 지원(전년 대비 24.0% 증가)

#### □ 특성화 지표 : 아이디어 기반 창업건수

- 최근 2개년('18~'19년) 실적의 표준편차(2.73%)를 '19년 실적에 합산하여 목표치(254건)를 설정하였고, 261건의 실적을 달성함

- '20년도의 목표 창업건수(254건)는 아이디어 권리화 지원 건수(946건) 대비 27%로 이 사업이 창업자금 지원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이 아니라, 아이디어 창업을 통해 간접적 고용 효과를 기대하는 사업임을 감안할 때 적절한 수준으로 판단됨

\* 기술창업 선진국인 핀란드, 스웨덴에서 예산이 지원된 아이디어 창업성공률은 10% 수준임(특허청, 지식재산기반창업촉진연구보고서, 2016)

- 또한 '18년부터 연간 투입예산이 3,668백만 원으로 동일함에도, 아이디어 기반 창업건수 목표치는 '18년 실적의 28% 증가한 것이므로 '20년의 추가목표 설정은 도전적으로 판단됨

## 4 개선권고

#### □ 평가 등급 : 개선필요

- IP디딤돌 프로그램은 아이디어의 권리화를 통한 창업에 중점을 둔 사업으로 정성적 평가에 비해 정량적 일자리 성과가 미흡하여 단기 및 중장기 목표 고용효과를 관리해 나갈 사업지표를 고안하여 현장과 공유하고 이를 통해 사업의 특성을 강화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사업의 중요성에서 강조한 기술창업 성공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균형발전에의 기여도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창업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설정하여 이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사업참여자의 특성이 다양하기 때문에 비대면 교육 및 컨설팅 시행 시 강사(컨설턴트)와 교육생 간, 교육생과 교육생 간 소통 활성화 노력이 필요하며, 대면과 비대면 교육 시 상호작용을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판단됨
  - 고령 참여자의 비대면 컨설팅의 번거로움을 해소시켜 주는 노력과 함께, 발표와 실습이 가능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강사-교육생 간, 교육생 상호 간 상호작용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교육생 간 네트워크 형성과 협업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 교육 성과가 자발적이고 지속적으로 나타나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제대로 된 품질의 컨설팅 제공과 특허출원을 위해 역량 있는 컨설턴트의 유지·활용을 위한 업무환경 개선 및 현실적인 재정적·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사업화 자금 지원이 부재한 사업이므로 투자 설명회, 아이디어 경진대회 개최를 통해 참여자가 시장에서 투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행사 기획도 창업활성화를 위한 유망한 대안으로 제안함